

골리앗을 넘어...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33-36절

-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л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오늘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투는 다윗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데뷔전’과 같은 전투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용기와 믿음,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시작되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2018. 8. 15/ 김종윤 목사 수요일예배 설교 중, 초등학교 씬름 영상과 물맷돌의 파괴력 영상)

골리앗 너머의 하나님 군대를 보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굳이 본문을 택한다면 사무엘상 17장 33-36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л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에 본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아서 **유다 땅 소고**에 모입니다.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뎀이란 곳에 진을 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에 모여서 대형을 잡니다. 이 두 곳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곳에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골리앗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돌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2미터 93센티미터**)이요

5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57kg**)이며

6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 그 창 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7kg**)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어마어마하죠, 다들 엄청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지나치는 부분인데, 사울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40일 동안 그 앞에서 몸을 움츠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 16절**.

//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6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조석으로 나랏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렇듯이, 인간의 계획과 각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때 나타난 주인공 다윗은 전혀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이 전쟁터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의 시작부터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마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늘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족이 사람들을 사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해도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의 키, 몸무게, 갑옷, 투구, 창, 그런 것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거룩한 불만족’이 시작되면 인간의 계산 같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승산’을 생각했기에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불만족은

인간의 계산 너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MMA’라는 격투기 종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두가 싸움에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많은 훈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움에 재질이 있어도 체급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아시나요?

또한 싸움의 방식에 따라 승산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2년 전 쯤 사상 최대의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의 경기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격투기 선수에게 복싱 룰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맥그리거는 격투기에서 천하무적이었지만 복싱 룰로 하는 경기에서는 10라운드를 버틴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메이웨더는 50전 전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만일 룰이 반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체급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싸움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키는 일을 했지만, 골리앗은 전문적인 전쟁 파이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한 말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3-36절 말씀.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브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리 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라 같이 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우리 삶의 현장은 ‘엘라 골짜기’와 같다는 겁니다.

비록 엘라 골짜기가 이스라엘 편에 있는 땅이지만, 적군을 바라보는 곳에 진을 치고 있으며, 그곳에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욕가운데 침묵하며 초라한 인생을 살 것인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서 맞이하는 싸움은 세상과 ‘싸움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에 나가며 한 말이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무기가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단창 같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세속적인 ‘불만족’은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거룩한 불만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았던 것은 골리앗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거룩한 불만족’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있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불만족을 듣고,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었듯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도시락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듯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향해 사울 왕이 했던 말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 선 순간, 이스라엘 군대 중 누구도 다윗과 함께 전선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외로운 것, 누군가의 비난을 받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을 물리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힘과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는 물맷돌 다섯 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도 거부하고, 자신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사울 왕의 무기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세상이 얼마나 물질 만능 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참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제일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돕지 않고 방관자로 머물렀던 사람들이 골리앗의 목이 잘리는 순간 모두 뛰쳐나갔습니다. 믿음이 증명되면 복된 잔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7장 51-52절 말씀.

51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

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라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승리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모두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이 유명한 전쟁의 승리 이후, 다윗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왕의 질투로 인한 도망자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친구 요나단을 얻게 된 것이죠.

사울의 눈으로 다윗 보기 vs. 요나단의 눈으로 다윗 보기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를 마치고 다윗은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금의환향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을 ‘사심’ 가득한 눈으로, 또는 열등감으로 보면 걸잡을 수 없는 비극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도, 그 직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버림 받은 사람이 머무는 그 자리가 불행한 자리라는 것을 자신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자존감을 상실한 자의 특징은 아주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고 분노하고 정신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칭찬하는 소리에 내면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생긴다면 잃어버린 자존감 때문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조차 우리는 비교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한 평신도들의 고백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 사울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 이해가 확 되었습니다.

상상1, 아내가 어느 날, 복근 있는 남편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또는 tv를 보다가, 나와 전혀 닮지 않은 연예인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잘생겼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겠습니까?

상상2, 직장에서 내直属 후배가 꽤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영업도 잘합니다, 심지어 상사에게 적당하게 아부도 잘 합니다, 심지어는 진급이 나보다 빠르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딱!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목하였더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질투’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바로 증명됩니다. 질투로 눈이 어두워진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창을 두 번이나 피합니다.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질투’의 감정 배후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질투 저변에는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라면 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운동경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탁구든 테니스든, 당구든 편을 먹고 경기를 하면 참 신기하게도 같은 편이 잘 하는 것을 응원하게 되는데, 1대 1로 경기를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골프 해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잘 치며 ‘good shot’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해서 골프 경기를 하는 동안 상대방이 잘 쳐서 마음이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환호하며 순수하게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사울에게 있었더라면.

자신에게 다윗과 같은 훌륭한 부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더라면.

이미 그의 나이 60이 넘는 시점에서 걸출한 후계자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는 악령을 보내고, 한 사람에게는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 보게 될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

람, 사울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질투의 영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60대의 나이에 20세 다윗에게, 왕인 자신이 일개 목동인 다윗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대놓고 다윗을 견제하고, 대놓고 다윗을 싫어하며, 대놓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어 했을까요?

사울왕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셔서 어디서나 승리합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따르고 사랑하자 사울은 첫째 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키려 합니다.

다윗이 연신 거절했는데도 사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인간적인 사육에 가득 찬 일들로 인해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파투난 결혼,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8-9절**을 보면 그 메랍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기브온 사람에 의해 교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사울은 또 다시 다윗을 사위 삼으려합니다. 이번엔 둘째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갈 또한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이 왜 이토록 다윗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려 했을까요? 다윗을 울무로 삼고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하겠다는 나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역시나, 그 결혼을 위해 사울은 어처구니없는 것을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이지요. 아주 더러운 미션입니다. 성기 가죽을 잘라 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다윗은 어쩌면 이 결혼을 통해서, 사위가 되면 더 이상 왕이 자신을 죽이려하지 않겠지 생각하고 결국은 나가서 전투를 벌여 포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00명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이 말 바꾸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겠지만, 결국 이 일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알게 되어 사울은 더더욱 다윗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위기 가운데 절친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부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들에 숨어있으면 내가 소식 전해 줄 테니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울과 사랑하는 다윗 사이의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다윗만 아니었으면 자연스럽게 사울 왕을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요나단이 능력이 없던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블레셋과의 전투

를 훌륭하게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삼상 14장). 거기다가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최소한 20살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4남 2녀를 두었고 그중에 요나단은 맏이였고, 막내가 1045년에 출생한 이스보셋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한 해가 1048년입니다. 즉, 다윗이 태어난 1040년에 8년이나 앞서 전투에 나갔던 것이죠. 아주 적게 잡아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족히 20년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나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보다는 마음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역할이 아니라 요나단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사울의 다음 왕위가 계승될 것을 생각하니 그 대상자가 자신과 다윗이었으니, 같은 세대를 지나가고 있었겠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충분히 정적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던 요나단에게는 친구 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없어져야 할 정치적인 ‘적’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 자신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더 적극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사무엘상 19:1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심지어 사울 왕이 죽이라 명령할 정도로 싫어하고, 자신의 앞날을 위협할 사람이 다윗이란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망가게 도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에 대해 좋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결국 중재자인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과 함께 있게 됩니다. 계속되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반복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전투에 나가 승리하고, 사울에게 악령이 오면 또 다윗은 수금을 타고, 그러다 또 다시 일이 터지지요. 사울이 다윗에게 다시 창을 던집니다. 그날로 다윗은 도망가는데, 그날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59편**입니다.

1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엮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

16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17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공회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의 시절이 시작됩니다. 그의 아내 미갈도 다윗의 도망을 도왔고, 그렇게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있던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뿔(라마 안)**으로 데려가 함께 지냅니다. 역시나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내지요. 그때 그렇게 도착한 사람들이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 벌여졌던 일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지요. 그런데 사울마저 예언을 합니다. 심지어는 밤새 종일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24절.**

23 사울이 라마 나뿔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 선지자 중에 예언하던 이 일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사무엘상 10장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선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울이 예언을 하며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벌거벗은 채로 하루 밤낮을 예언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는 비참한 사울의 모습이죠.

라마 나뿔까지 쫓아온 사울을 피해 다윗은 다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가 만난 사람이 친구 요나단입니다.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토로하자 요나단은 다윗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을 잇는 매개체는 무엇이였을까요?

그저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부하와 단 둘이서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던 내용을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했던 말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
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둘은 비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늘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주목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있었던 많은 장애를 이겨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은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는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에셀 바위**에 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열려줄 터인데,

사냥하는 척 하면서 화살 세 번 쏘고 아이 하나를 보내서 화살을 주워오게 시키면서 ‘네 옆에 화살을 주워오라’고 내가 말하면 다윗이 무사할 것이고, ‘내 앞에 화살이 있다’라고 하면 도망가라는 사인으로 알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숨겨 보낸 후, 요나단은 사울이 식사하던 중에, 엄청나게 혼납니다. 네가 다윗을 왜 숨겨주느냐고! 왜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었냐고 말입니다. 요나단도 화가 났겠죠. 대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반발한 것이죠.

그러다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이때 요나단이 확신하게 된 것이지요.

아, 다윗은 죽겠구나!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이후 다윗은 숨었던 바위 곁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요나단에게 세 번 절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단은 울며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다윗도 울죠.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1/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웅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둘의 관계와 우정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의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참 많이 느끼는 것이죠. 의미 있는 관계는 친 형제보다도 가깝고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서로 믿음을 나누고 동일한 곳을 바라보며 삶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험한 때, 가장 힘든 때, 그를 지지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특히 경쟁관계로 얼룩진 세상에서,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밟아야 하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높여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엘라 골짜기’의 승리와 같은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정점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 우리를 끌어내리고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가장 좋은 친구는 저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겠지만,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받은 은혜를 아들 므비보셋에게 베푸는 장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취급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감동적으로 만드는 일,

그것은 엘라 골짜기의 승리를 넘어서, 고난의 여정을 같이 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일들이 아닐까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잊지 않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갚을 은혜가 있는 것,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가 있어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 신뢰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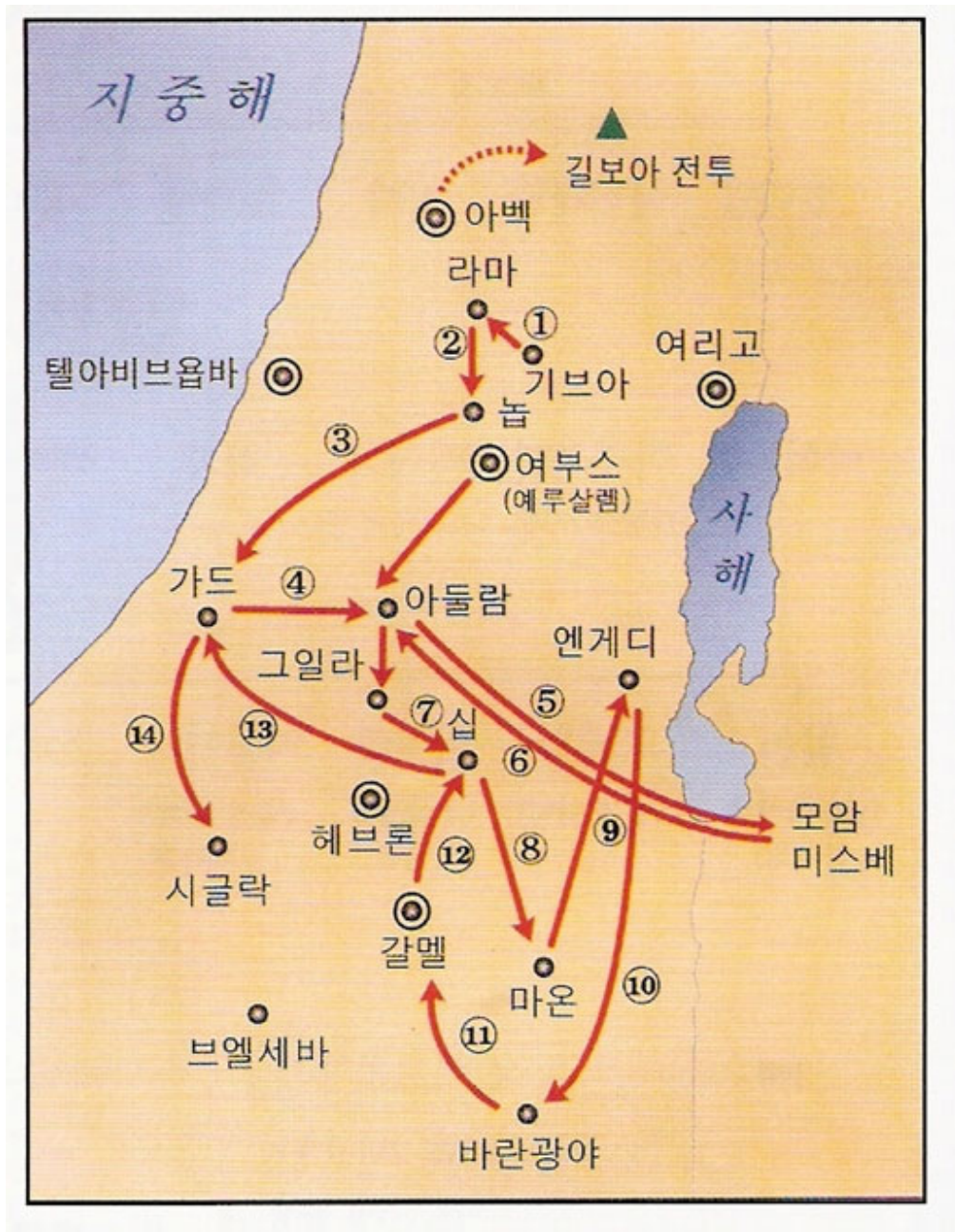
지금 잘 사는 것,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찾을 열매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비록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의 승리로 인해 당해야 하는 고통이 많았지만, 가장 소중한 우정을 얻었던 사람, 기억할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물음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나단이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준다면 참 귀한 일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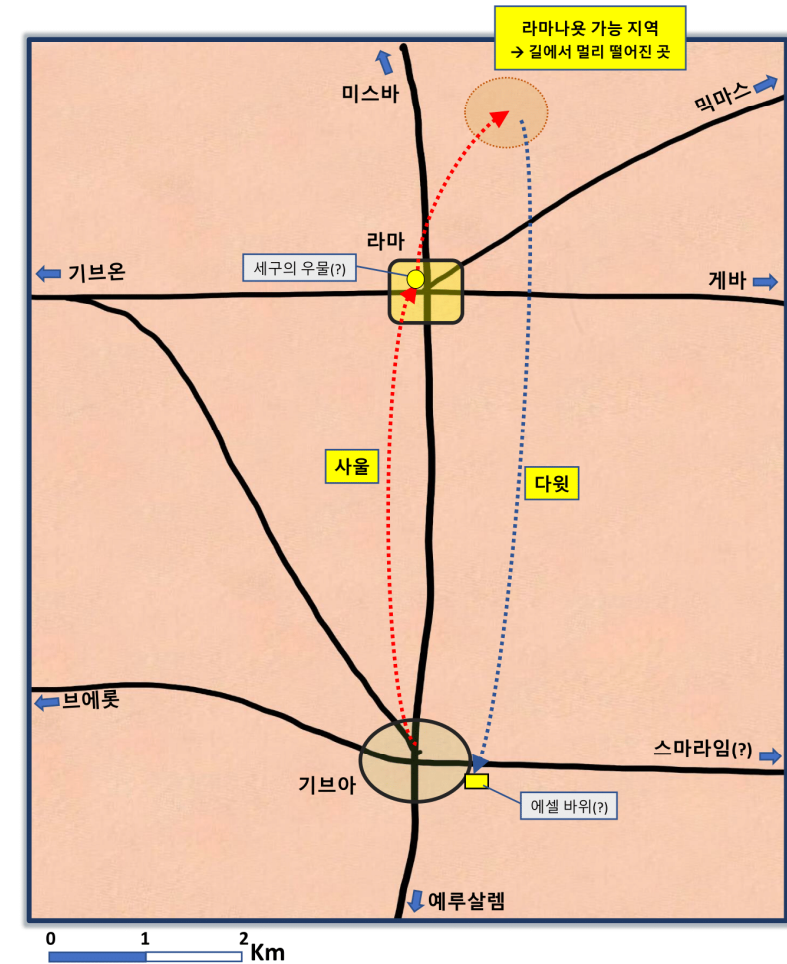


< Map - 04 / 네번째 여정 >

▶ 기브아의 돌판 에셀 바위(האבן האשל)

: 증거의 돌 무더기

▶ 삼상 20:1-42



© Made by Mikra & Eretz Mikra